

## 사회의 다양한 모습 보여주는 인물들의 진솔한 이야기



###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김경욱 지음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잘 쓰는’ 소설가이다. 이십대 초반에 작품 활동을 시작해 거의 스무 해 가까운 시간 동안 이번 소설집을 포함해 무려 열한 권의 책을 펴냈으며, 늘 군더더기 없는 문장과 구성으로 독자를 사로잡으며 흥미로운 소재를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를 던지는 소설들을 선보여왔다. 또 한국일보 문학상과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작품 수준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광주 출신 소설가 김경욱(40·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시진)씨를 이르는 말이다.

1993년 등단해 한결같이 활동하는 중견 작가 김경욱이 소설집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를 발간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예지 등에 발표한 작품을 모은 이번 소설집은 “삶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대신 머뭇거리기의 야릇한 불안감과 두근거림만을 음미하던 이전까지의 심미주의적 태도를 벗어나 어떤 행위와 결단으로 나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그렸다”(평론가 권희철)는 평가를 받는다.

표제작 ‘신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초등학교 소녀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복수에 나서는 늙은 사내의 이야기다. 헤밍웨이식 하드보일드 색채가 강한 이 작품에서 사내는 성폭

행 후유증으로 말을 잃은 소녀와 재개발 지역에서 단둘이 산다. 이미 가슴이 끊어졌고 전기와 수도마저 끊어질 위기다.

막막한 상황이지만 그는 단호하게 보상을 거부한다. 교회에 다니는 그는 “형제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며 종교를 앞세운 교양의 유혹도 당당하게 뿌리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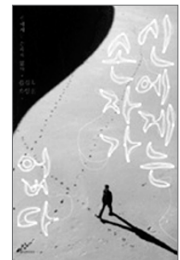
그러고는 진지한 태도로 복수를 준비한다. 학생 신상카드, 입주인 주차스티커 등을 확보한 뒤 부유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가해자 가족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운다.

그는 치밀하고 냉정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그런데 아이없게도 이런 거창한 계획의 최종 목표는 주차된 자동차에 불 지르기로.

원했던 대로 복수에는 성공한다. 하지만 당연히 상대에게는 큰 위해가 되지 않는다. 노인은 처음부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혼자서만 심각했던 것이다.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의 현실은 여전히 비참하다. 고질인 당뇨는 갈수록 심해져 시력을 잃어 가고 손녀의 몸도 점점 약해져만 간다.

또 다른 단편 ‘러닝 맨’에서는 잠재적 범죄자



로 둘러싸인 사회 상황과 빈부차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역시 표제작 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다.

가난한 과외 교사인 주인공은 갑주정도에 사는 여고생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린다. 부녀자 납치 사건에 대한 소문이 흘러다니는 가운데 문신을 한 남자, 오토바이 폭주족 등과 마주친다.

구체적 위협은 없지만 소설은 주인공의 심리 묘사를 통해 막연한 불안과 긴장감을 불러 일으킨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강남 부유층의 삶을 선망하는 주인공은 결국 자신도 그들에게는 잠재적 범죄자로 비칠 수 있다는 현실을 절감한다.

책은 또 1%의 상위층을 향한 우리의 속물적 욕망을 꼬집는 현대문학상 수상작 ‘99%’, 왕년의 권투 유망주, 일명 허리케인 조라는 노인이 자서전 대필작가를 찾아와 털어놓는 이야기를 통해 진행되는 ‘허리케인 조의 파란만장한 삶’ 등 모두 아홉 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작가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인물,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폭을 넓히려고 노력했다”면서 “동시대의 문화코드, 지식인의 삶을 주로 그렸는데 이를 벗어나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모습을 다루고자 시도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출처·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맛있는 음식 재미있게 먹기

### ‘칼과 황홀’ 성석제 지음



천부적인 이야기꾼, 소설가 성석제가 음식 책을 냈다. 요리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맛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자랑(?)하는 에세이 ‘칼과 황홀’을 펴냈다.

그가 고향 경북 상주부터 남미 칠레까지 온갖 곳에서 맛본 다양한 음식과 사람들의 정겨운 일화를 담았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문학동네 인터넷 카페에 연재한 글에 국수, 두부과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더해 더욱 군침 넘어가는 책을 완성했다.

1부에서는 밥상에 대한 글을 실었다. 부부막 무쇠술 김치볶음밥 같은 가정식 음식은 물론 연탄불에 올려놓으면 뽀얀 물이 나오는 볶음, 독일의 할매 포차에서 맛

본 소시지, 중국에서 먹은 동파육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깔스런 글 솜씨로 소개한다.

“간장에 들어 있는 아미노산이 감칠맛과 시원한 맛을 내고 김치의 유산균이 내는 산미, 천일염이 가진 짠맛 등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뇌 속 미각을 자극한다.”

음식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도 담겼다. 대학시절 백일장에서 가작에 그친 성석제가 함의하리 심사 선생님을 찾아갔다가 흥어편을 얻어먹고 만취한 예피소드 등을 전한다.

또 2부에서는 술상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고 3부에서는 찻상과 후식에 대한 견해 등을 담았다.

〈문학동네·1만38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음이 문자가 되는 놀라운 혁명

### ‘한글의 탄생’ 노마 히데키 지음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글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책을 출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글날(9일)을 앞두고 일본의 한국어 연구자인 노마 히데키 전 도쿄외국어대 교수와 출판인의 창작 과정과 원리를 언어학적으로 설명한 ‘한글의 탄생’이 번역·출간됐다.

미술가로 활동하던 중 한국어에 매력을 느껴 다시 대학에 들어가 한국어학을 전공하게 된 저자는 이 책에서 애정 어린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글의 특징과 탄생 과정을 전하고 있다.

저자는 “한글의 구조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음이 문자가 되는’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하게 된다”며 “그래서 한글을 본다는 일은 하나의 문자체계를 뛰어넘어 언어와 음과 문자를 둘러싼 보편적인 모습까지도 보는 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글의 탄생, 그것은 문자의 탄생이자 ‘지’(知)를 구성하는 원자(原子)의 탄생이기도 하고 새로운 미를 만들어내는 ‘게슈탈트=형태’의 혁명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글을 잘 모르는 일반 독자를 위해 쓴 인문서지만, 한글을 모국어로 하고 있는 한국 독자가 읽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

〈돌베개·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일상 속 인간의 행동·심리·감정

### ‘인간은 왜 박수를...’ 고바야시 도모미치 지음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동작과 행동, 심리, 감정 등을 진화이론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 고바야시 도모미치 닷토리 환경대학 교수의 ‘인간은 왜 박수를 치는가’가 번역·출간돼 나왔다.

‘왜 문병갈 때 꽃을 가지고 가는가’ ‘왜 귀신이야기는 무섭지만 듣고 싶은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19개의 사례를 제시하고 ‘왜 그럴까?’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가령 인간이 우호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박수를 치는 이유는 박수가 내는 음정 높은 소리가 상대방에 대한 우호의 감정과 선천적 인지계 안에서 서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이밖에 ‘왜 고인할 때 머리를 굽지 않을까’ ‘왜 나란히 걷는 커플은 여성이 왼쪽에 서는 경우가 많을까’ 등의 호기심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다빈·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전통 활 국궁, 그 오묘한 매력

### ‘활을 쏘다’ 김형국 지음



영화 ‘최종병기 활’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통의 활인 국궁의 모든 것을 담은 김형국씨의 ‘활을 쏘다-고요함의 동학, 국궁’이 새롭게 나왔다.

2006년 출간된 것을 보급판으로 재출간한 ‘활을 쏘다’는 저자 스스로 국궁(활)을 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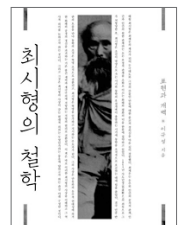
영조와 정조 임금의 활 쏘는 모습을 그린 ‘어사도’(御射圖)와 단원 김홍도의 ‘활쏘기와 활 엮기’ 등 활 관련 유적을 담은 사진들은 사료적 가치도 충분하다. 〈효형출판·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모습, 활쏘기 대회 등 국궁 문화의 현상을 꼼꼼히 취재해 기록했다.

영조와 정조 임금의 활 쏘는 모습을 그린 ‘어사도’(御射圖)와 단원 김홍도의 ‘활쏘기와 활 엮기’ 등 활 관련 유적을 담은 사진들은 사료적 가치도 충분하다. 〈효형출판·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국 현대철학의 끊어진 맥을 잇다

### ‘최시형의 철학’ 박홍규의 철학 이규성·최화 지음



서양 철학자의 사상과 역사는 껌면서도 정작 동양이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학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동양과 서양으로 양분돼 온 철학 연구의 흐름 속에서 소외돼 왔던 한국 현대철학을 조명하는 시리즈가 출간됐다.

세알학회와 근현대 한국사상사 연구모임인 ‘한국현대철학선’의 첫 번째 출간본으로 ‘최시형의 철학: 표현과 개벽’, ‘박홍규의 철학: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선보였다.

이들은 발간사에서 “이제까지 한국에서의 철학 연구는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어 주로 강대국의 사상을 가운데 주류로 알려진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 제기로 출간 취지를 설명했다.

이규성 이화여대 교수가 쓴 ‘최시형의 철학’은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형(1827~1898년)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최시형 사상의 역사적·현대적 의의를 짚어보고 있다.

최화 경희대 교수가 쓴 ‘박홍규의 철학’은 ‘한국의 소크라테스’로 불리며 한국현대철학사 중 서양철학 부문에서 가장 광범위한 업적을 이룬 박홍규(1919~1994년)의 철학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한국현대철학선’은 이 두 권에 이어 최재우와 서남동, 김교신의 철학을 분석하는 책으로 시리즈를 이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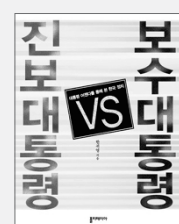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각 권 1만6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신간

▲백불(白佛)-존재에서 기억으로 = ‘냉정과 열정 사이’의 공동 작가 츠지 히토나리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모델로 쓴 소설이다. 저자는 어머니에게서 전해 들은 할아버지 이야기에 픽션을 가미했다. 리얼전쟁의 승리, 태평양전쟁의 패배, 고도성장의 과정을 거친 일본 현대사를 배경으로 오노자마라는 섬에 사는 주인공의 일생을 그렸다. 주인공 예구치 미노루는 어릴 때 이산한 소녀의 시체를 목격한 이후 자애로운 흰 부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다. 〈소담·1만2800원〉

▲만나라 이웃나라-중국 2세대 편 = 이원복 교수가 30년에 걸쳐 집필한 ‘만나라 이웃나라’ 시리즈 최신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쑨원의 봉소용공 정책으로 국공합작이 성립되는 시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모습을 담았다. 국공 분열과 내전,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등 중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당시 국내외 상황과 연계해 분석적인 시각으로 설명한다. 〈김영사·1만1900원〉

▲아버지의 길 1, 2 = 1997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한 현역 라디오 PD 이재익씨의 새 역사소설.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미군의 포로가 된 한국계 독일군 김길수의 삶을 모티브로 했다. 일본군으로 징집됐다가 소련군에 붙잡힌 김길수는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독일군 포로가 됐고 다시 미군 포로가 되는 등 기구한 삶을 살았다. 〈황소북스·각 권 1만2800원〉



▲책의 미래-장기형 책의 미래를 말한다 = 장기형 한국전자출판협회 사무국장이 지난 10년간 경험한 전자출판산업의 역사와 고찰을 담았다. 저자는 미디어 환경과 독서 스타일이 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네티즌들의 독서 스타일의 변화에 천착하지 못할 경우 종이책 기반의 출판사의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돈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묵묵히 전자출판을 지켜온 이들과 산업에 대한 애절한 애정으로 녹아있다. 〈푸른영도·2만3000원〉

▲진보대통령 vs 보수대통령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를 토대로 진보·보수진영 출신 대통령들이 각각 어떤 어젠다(의제)를 설정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저자 한규영씨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D) 재직 시절인 2003~2008년 진행한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두 대통령의 정책 의제에 대응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짚어 본다. 〈폴리테이아·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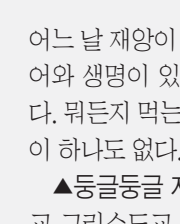
▲매신자들 = 미국의 사회철학자 에릭 호퍼(1902~1983년)가 1951년 발표한 첫 저서로 집단 동일시의 심리를 연구한 책이다. 초기 기독교에서 현대의 공산주의, 나치즘, 민족주의까지 여러 대중운동을 아우르며 개인이 광신자가 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오늘날에도 종교적·이념적 근본주의자, 테러리스트, 자살폭탄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지침서로 읽힌다. 〈구리·1만3000원〉



▲얼씨구 지화자 즐거운 전통놀이 = 웃음을 비롯해 줄다리기와 쥐불놀이, 그네뛰기와 씨름 등 우리 전통놀이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영국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메리 제인이 복숭아, 복숭아와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전통놀이 역사와 배경 등을 살펴보고 있다. 〈주니어랜덤·8800원〉

▲나는 괴물이다 =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가면 놀이로 풀어낸 그림책이다. 엉뚱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 ‘최여름’은 어느날 종이봉투로 만든 가면을 쓰고 빨간 망토를 두른 채 괴물로 변신한다. “나는 괴물이다”를 외치며 지구인들을 놀래키려 하지만 ‘어른 지구인’들은 시큰둥하게 지나가거나 박장대소할 뿐이다. 〈국민서관·1만2000원〉

▲난 돼지가 아니야 = 지나친 욕심으로 체면을 버린 호랑이의 모습을 유쾌하게 그렸다. 살이 토실토실 쪼면 호랑이가 맛있기로 소문난 할매나 국밥을 먹기 위해 국밥집에 찾아



가지던 호랑이를 유독 싫어하는 할매니는 호랑이만 보면 주걱으로 쫓아낸다. 국밥이 너무 먹고 싶었던 호랑이는 털을 모두 뽑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패지인 것이다. 〈한림출판사·1만800원〉

▲초록 뱀이 꾸물럭! = 배가 고파서 세상을 통째로 먹어버린 신비한 초록 뱀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이다. 천진난만한 초록 뱀이 사는 평화로운 낙원에 어느 날 재앙이 닥친다. 멀리서 탁한 바람이 불어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쓰러뜨린 것이다. 뱀은 이제 초록 뱀이지만 이제의 먹은 것이 하나도 없다. 〈느림보·1만원〉

▲둥글둥글 지구촌 축제 이야기 = 힌두교 불교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주요 종교의 축제·명절·관습 등 다양한 정보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소개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총 5개의 대륙을 중심으로 세계 각 나라의 축제를 통해 세계인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 의례 그리고 생활양식 등을 알아본다. 〈풀빛·1만원〉

## 어린이 책꽂이